

## 로컬푸드 첨단문화장터 “가는날이장날”

남유정 (광주여성센터 식량주권위원장)

### \* 개요 및 현황

#### □ 연혁 :

2009년 전여농 사회적기업의 꾸러미사업을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 사업으로 활동시작.

2년동안 꾸러미 소비자 담당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토종씨앗지킴이, 특판, 텃밭체험 활동하고있음.

2011년 5월부터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 로컬푸드 첨단문화장터 “가는날이장날”>>을 개장하여 진행하고 있음.

#### □ 취지 : 우리 농업과 텃밭을 지켜낸다.

토종씨앗을 일구어 종자주권을 지킨다.

여성농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농촌과 도시가 소통하는 장을 만든다.

주민들의 공동체문화조성의 자리를 만든다.

#### □ 주체 :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 광주여성센터

#### □ 협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호반 3차 아파트 임대위, 첨단2동주민자치센터

#### □ 진행방식 :

1) 로컬푸드강좌 3회 실시

2) 로컬푸드 요리교실 4회 실시

3) 5월부터 매월 1회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까지 아파트 안 공터에 로컬푸드 농산물 장터를 열어 전남지역 생산자와 마을주민이 함께 만나는 자리로 진행하고 있음.

4) 문화공연, 어린이 재활용장터 진행, 지역 중,고,대학생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

#### □ 정책지원여부 : 광주광역시와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지원비 1,200만원(일회적 지원)

#### □ 농산물현황 : 텃밭에서 길러온 제철 채소, 두부, 묵, 유정란, 특산과일류, 장류(영농조합법인), 음료(식혜, 콩물, 배즙), 묵, 야채전과 동동주 등

#### □ 동네특징 :

호반3차아파트 전체 2,000여세대 중 장터를 하고있는 단지 주민이 700세대정도.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의 주민복지에 대한 의지가 강해 적극적 협조.

□ 매출 : 5월 120만원  
6월 250만원  
8월

## \* 시사점

### □ 애로점 :

생산자가 주인공이고 주체임을 강조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품목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이주시키는데 생산자와의 소통이 안 되고, 물품이나 시간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마찰이 있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러 나오는 것이 농촌현실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 □ 희망적인 부분이나 가능성 :

(1) 마을주민들에게 로컬푸드강좌를 통해 제철먹을거리에 대한 기본 홍보가 된 상태여서 물품 구매시 장터이용자가 생산자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아파트 방송과 현수막, 신문게재 등으로 장터 취지와 홍보가 활발하여 장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더불어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3) 초창기 시민단체가 주관한다는 선입견을 갖는 부분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마을 안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장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4)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롯하여 장터에 참여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분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주고,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좋은 장소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공식적인 장터 후인 10월부터는 시민단체가 한 발 물러서서 자문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아파트 주민이 직접 나서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5) 작지만 장터의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 나가고, 아파트 한 단지에서 -> 다음해에는 그 옆 단지로, 또 그 옆 단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 □ 정책지원이 필요한 부분 :

(1) 시 소유의 공원 녹지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산물장터가 공식적으로는 허가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정책적으로 농민장터를 지원하려면, 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장을 열어야만 장기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2) 실무자의 활동비: 우리 단체의 경우,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에는 시민단체 실무활동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가의 실무활동비를 가난한 시민단체에서 자부담한다는 것은 오히려 말그대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무자의 활동영역과 반경에 따라 적절한 활동비를 지원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 □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할 때 감안해야할 점

(1) 어떤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터에 물품을 팔게 허가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의 농산물을 농민과 1,2명의 활동가가 수거하여 대표농민 몇 분이 직접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사업의 취지를 잘 알고,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책임감있는 관리, 생산자 주체를 선정해야한다.

(3) 실무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인지를 잘 관찰하고 지원해주려는 지자체의 노력과 따뜻한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